



하나로 통하는 친환경 통합이동서비스, 「MaaS」

◆ 최근 기후변화 문제로 전세계가 몸살(ex 유례없는 홍수, 폭염, 산불 등), 이에 친환경 통합이동서비스 MaaS(Mobility as a Service)에 대한 관심 증대

□ (MaaS란)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한 각종 서비스의 최적 솔루션 (최적경로·비용정보, 음식·교통비 결제 등)을 연계해 제공하는 복합이동시스템

- 공유이동수단, 전기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상호 연계시켜 교통난 해소 및 환경·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,
 - 현재 서비스 연결·통합 정도에 따라 5단계(0~4단계)로 구분 중*, 현상용화 단계는 낮은 수준이나 향후 시장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

< 서비스 연결·통합 수준에 따른 MaaS 상용화 단계 (※ EU MaaS Alliance 기준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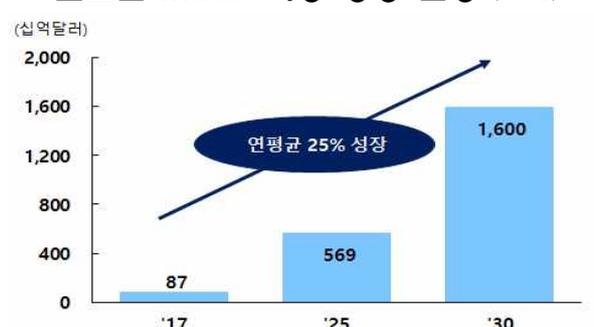
단계	분 류 명	개	요	예
0	통합이 없는 상태 (No integration)	- 개별 이동서비스가 연결없이 별도로 제공		코레일톡(KTX), 따릉이(자전거)
1	정보의 통합 (Integration of information)	- 개별 교통수단의 요금·경로 등이 일원화되어 제공, 이용자의 최적 이동수단 선택이 용이		구글맵, 네이버지도
2	예약·결제의 통합 (Integration of booking and payment)	- 일원화된 정보하에 선택된 교통수단 등의 예약·결제 등을 단일 앱에서 일괄로 해결		獨Moovel, 카카오T
3	서비스 제공의 통합 (Integration of service offered)	- 각종 이동서비스가 종합적으로 통합제공되고 기간 정책제(구독서비스) 등 서비스 이용 가능		스웨덴 Ubigo, 핀란드 Whim
4	정책의 통합 (Integration of social goals)	- 친환경 등 사회적 목표를 위해 도시계획, 인센티브 제공 등 교통정책이 뒷받침되는 상태		(현재 없음)

- 글로벌 시장은 '30년 1.6조달러 규모로 연평균 25% 성장 전망(PWC, '17년)

< MaaS 구축 개념도 (경남 MaaS 포럼, '20.10) >



< 글로벌 MaaS 시장 성장 전망 (PWC) >



□ (국내외 사례) 선진국 중심의 상용 본격화,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

- (해외) 스웨덴, 핀란드 등은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이동수단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도시·지방정부 주도의 MaaS 서비스 상용화 추진
 - 스웨덴 예테보리의 Ubigo, 핀란드 헬싱키의 Whim 등이 현존 MaaS 중에서 가장 높은 상용화단계(3단계)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(MaaS Alliance)
- (국내) 국토부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계획*(’21.3월)하에 MaaS 상용화 실험, 민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·티맵 등 기업이 MaaS 체계 구축 시도 중
 - * 도시 전역 스마트화를 위해 도시별 215억원의 사업비 지원, 위 계획下 강릉은 MaaS 도입
 - 다만, 공공과 민간 이동수단간 상호 연계된 서비스는 아직 미미한 수준

< 국내외 MaaS 사례 (※ 국내외 언론, MaaS Alliance) >

국가	서비스명	특징
스웨덴 (예테보리)	Ubigo	- 최초로 MaaS의 개념을 정립, 앱을 통해 5대 교통수단(대중교통·공유차량·렌트차량·공유자전거·택시)에 대한 이용정보 및 예약·결제 서비스 제공
핀란드 (헬싱키)	Whim	- 최초의 MaaS 상용화 사례, 발달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·민간 이동수단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적화된 이동플랜을 제시
한국(강릉)	획파인페이스	-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·시내교통·KTX 승차권 이용가능

□ Maas 산업 ↑ : 1)편리함, 2)친환경, 3)전기차·자율주행차, 4)카셰어링

-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중 39%가 교통부문이며, 승용차·택시·버스의 54%를 전기차로 대체하면 오염물질이 77% 감소한다는 보도(서울연구원, ’18.7)
 - *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해도 내연기관차보다 약 3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(EU)
 -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“전기차도 카셰어링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소”이며, “차량공유 시장은 2019년 25억불에서 2026년 90억불로 3.6배 성장”할 전망(이코노믹리뷰, ’21.1)
- ⇒ 모빌리티 통합이동서비스(MaaS)는 1)기존 편리함(교통수단 통합관리)에 더해, 2)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완화, 3)전기차·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적합 및 4)카셰어링 등 글로벌 공유트렌드에 부합하는 등 다양한 장점
- 국내의 첨단 IT인프라, 과밀 인구 등 특성은 MaaS 도입에 적합한 환경

(작성자 : 경제경영연구실 과장 김성민 kimhaje122@ibk.co.kr / ☎02-729-7385)